

# 광주 그곳, 그리고 지금 여기



노여운·강선호·박성완·박인선·안희정·타라재이 작가가 참여한 '그곳, 그리고 지금 여기' 전에서는 광주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에게 요즘의 광주 풍경은 추억이 부채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공간이 없어지고, 특히 요즘의 재개발 열풍 속에서 그 사라짐의 속도와 강도는 더 빨라지고 커지는 듯하다.

'예술공간 집'의 문화예술행사 기획자 '광주'를 이야기해온 작가들을 초청한 전시 '그곳, 그리고 지금 여기' 전(22일까지)에서는 광주의 변화된 모습과 사라진 풍경,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 풍경 등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선호, 노여운, 박성완, 박인선, 안희정, 타라재이 등 여섯명의 30~40대 작가가 담아낸 '광주의 모습'엔 직접 목격한 '사라짐'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과 함께 사라질 지도 모르는 것들을 기록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2개의 전시실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색다르게 구현

## 사라진 풍경·일상 담은 회화·사진·글 함께 전시 '예술공간 집' 22일까지 강선호·타라재이 등 초대

한 공간 구성도 눈에 띈다. 두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그림과 함께 '그리는 것을 마음에 담은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등 타라재이 작가의 글을 함께 배치했다.

지난해부터 계림동·광천동 등 재개발 풍경을 화폭에 담은 강선호 작가는 '사진처럼' 보이는 재개발 공사현장을 화폭에 풀어낸다. 화면을 장악하고 있는 높은 타워는 위압적이고, 작품은 한 마을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했던 장소들이 한꺼번에 무참히 사라지는 풍경들에 대한 허무함과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사진과 회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는 박인선 작가는 '꺼지고 가는 것'의 외딴집이 재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걸 목격하고 이를 작품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작가에게 집이 사라짐은 유년시절의 기억이 사라짐과도 같았다. 불안하게 화면 한 가운데 매달리거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버린 것처럼 묘사된 불안한 집은 우리의 삶마저도 위태로운 게 아닌가 돌아보게 만든다.

따스한 파스텔톤의 작품으로 각인된 노여운 작가의 그림도 자신의 기억에서 출발했다. 어린 시절 몇 년간 살았던 학동의 어느 동네를 10년이 지난 후 만난 그는 재개발로 철거된 집들을 아쉬워하며 그 빈공간을 그림으로 채워갔다. 동네 슈퍼의 소박한 모습을 그린 작품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각기 다른 풍경을 보여줘 이채롭다.

사진을 찍는 안희정 작가가 주목하는 건 '추억의 질감을 간직하고 있는' 창과 문이

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동네의 작은 집들, 창문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의 담벼락을 앵글에 담았고 설치 작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박성완 작가는 금남로의 분수대, 대학교정의 잔디밭, 수년째 한 자리를 지켜온 문화전당 앞 호떡집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상을 그려나간다. 그가 바라본 광주의 소소한 풍경들은 광주를 기억하려는 이들에게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두터운 마티에르와 다채로운 색감을 통한 자유로운 붓터치는 작품에 공간감을 부여하고,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게 해준다.

글을 쓰는 타라재이 작가가 전시에 참여했다. '지역보관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가는 5명의 화가들이 포착한 광주의 그곳을 직접 찾아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그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문의 062-233-3342.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 위로와 평화를 기원하며

### 황영성 '천수관음도' 무각사에 봉안

천수관음보살의 온화한 미소가 보는 이들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

서양화가 황영성 화백의 '천수관음도' (千手觀音圖)가 광주 무각사에 봉안됐다. 지난달 30일 광주 무각사에서는 청화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관음도' 봉안식이 열렸다.

신도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드리는 공간에 걸린 '천수관음도'는 150호 크기의 작품으로 따뜻한 느낌의 노란색을 주조로 제작됐다.

지난해 5월 상하이 미술관 관장의 초청으로 중국 간쑤성 둔황을 방문한 황 화백은 현지에서 '천수관음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받았던 감동을 표현하고 싶어 그림 작업에 매진했고, 기원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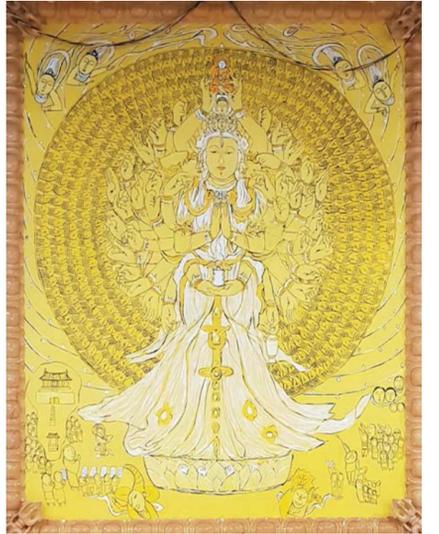
"천개의 손과 눈을 갖고 있다는 천수관음보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었어요. 현장에서 작품을 보고 쉽사리 눈을 떼 수가 없었어요. 5·18로 인해 아파하는 광주시민들을 이루만져주고, 6·25 등 근현대사를 통해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주시라고 기원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려보자는 생각이었죠."

천수보살을 재해석해 화면 중앙에 배치한 황 화백은 그림을 제작한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 작품 아랫부분에는 당시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이들과 무각사 청화스님, 신도들의 모습도 함께 배치했다.

그림 작업을 하던 중 불교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청화스님에게 문의했고, 이번 기증까지 이어졌다.

황 화백의 작품은 무각사에 한점 더 설치돼 있다. 지난 2017년 설법전에 설치된 '반야심경' (가로 8mX세로 2.5m)은 1000여개의 사각형 안에 불교 경전 '반야심경' 270자와 사천왕, 각종 보살, 삼라만상 등을 그려넣은 대형작품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천수관음도'

## 극단 토박이 '아우라지' 강좌 중학생 참가자 모집

광주 극단 '토박이'가 오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역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연극 강좌 '아우라지'를 진행한다.

극단 토박이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아우라지'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주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극, 음악, 뮤지컬 프로그램과 중학생들을 위한 만화 그리기와 연극, 영상 프로그램 등이 있다.

7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9시 동구 동명동 민들레극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봄 학기 과목은 연극이다. 연극에 관심 있는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13일~11월 30일 진행되는 가을학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강좌를 연다.

1983년 창단한 극단 토박이는 오월극 '모란꽃', '금희의 오월', '청실홍실', '마중'과 환경 문제를 다룬 '가물치 왕자', 청소년 공연 '죽기살기',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찢어버거' 등을 무대에 올렸다. 그동안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연극학교'와 중학생 대상 '배우들의 유쾌, 상쾌, 통쾌한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재)국제기후환경센터와 함께 어린이 환경뮤지컬단 '가이아'를 이끌었다. 문의 062-222-628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흥놀이'로 신화 찾기 떠나요 '문화집단 열혈지구' 참가자 모집

'나만의 신화를 찾아서...' 문화예술단체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4일부터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에서 '2019 흥(興)놀이 프로젝트 놀이하는 사람들 No.5. 오월 할망' (이하 '흥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흥놀이'는 신화를 모티브 삼아 개인의 신화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놀이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신화 찾기의 여정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흥놀이' 프로그램은 문학, 연극, 인형극, 미술, 공예, 인문학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다채롭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다. 흥놀이를 통한 신화 찾기의 귀환은 창작극 공연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콘텐츠 구축과 함께 참가자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되찾는 게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다.

오는 10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9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15명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3154-9455.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